

대한결핵협회의 세계결핵퇴치 기여 가능성을 본다

글 □ 강미경(결핵연구원 국제협력실장)

2006년은 국내적으로도 결핵의 위험성과 실태가 국민들에 의해 심각하게 인식되는 의미 있는 해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결핵퇴치를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그간의 국제협력 노력이 국내 외적으로 인정되어 동 지역의 결핵퇴치 활동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국제협력 역할과 사업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세기 말부터 급작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1세기 현재까지도 그 고삐를 늦추지 않은 세계 결핵은 결핵의 세계적 위기선언, 비상상태선포 등 지구적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양상이나 전염력 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어 국제사회는 다제내성결핵(MDR-TB)과 광범위 내성결핵(XDR-TB) 등의 새로운 분류와 함께 신약개발과 전파차단을 위한 초국가적인 협력대처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27일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에서 착수된 UN의 새천년 발전 목표(MDG)는 지구상의 절대빈곤과 문맹퇴치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8개 목표 중 하나로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을 전인류가 주목해야 할 주요 질환으로 선정함으로써 단일질환인 결핵이 인류의 전체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아직도 현실적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전세계 MDR-TB 및 XDR-TB의 90%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인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발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의 신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상응한 대외원조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결핵관리 분야의 국제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개도국으로 하여금 당면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무상원조의 수혜를 넘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질병 퇴치와 건강증진을 위한 자립적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보다 폭넓은 차원의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세계결핵퇴치를 위한 우리의 목적사업과 직결되므로 매우 효과적인 원-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생하여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서 이들 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가 활발한 우리나라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나 국가간 교류를 통한 협력지원 없이는 개도국 내성결핵의 국내유입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에 의한 결핵관리 국제협력사업

정부와 대한결핵협회가 지난 40여 년간 수행한 우리나라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조직적인 수행체계와 성과는 과거 엄청나게 결핵이 창궐했던 시절로부터 빠르게 결핵이 감소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수행된 결핵관리 국제과정 연수 등을 통해 현재 개도국이 배울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어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북한의 결핵지원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2006년 본회는 정부의 지원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와 아태지역 결핵관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아래 양해각서 서문 중 일부 참조) 서태평양지역의 결핵퇴치를 위한 최고자문회의인 제5차 TAG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회의의 제안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제1차 아·태지역 결핵균검사 정도관리 국제연수와 제1차 결핵관리 고급과정 국제연수를 개최한 바 있다. 또

한 국제결핵연구센터와 함께 다제내성 결핵의 연구발전 및 국제과정 개발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통하여 세계결핵퇴치의 공동노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외 총 16개 국제기관 및 80여 명의 전 세계 결핵전문가와 각 국가대표들이 참석한 동 TAG 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의 지역 내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향후 5년간(2006-2010)의 목표와 달성을 위한 지역전략계획 등이 핵심권고사항과 함께 채택되었다. 북한의 참여를 고려하여 베이징에서 개최한 결핵균검사 정도관리 국제연수에는 16개 국가의 균검사 담당자 외에 북한의 실제 결핵관리 담당자 3명이 참여하여 아태지역의 결핵균검사 감시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북한 결핵상황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개선을 위한 남북한의 공동노력 가능성 등을 토론할 수 있어 향후 통일에 대비한 결핵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결핵관리 기술지원 등의 교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핵관리 고급과정은 다제내성 결핵과 TB & HIV, 공공민간협력 등의 연수에 초점을 맞춘 아태지역의 유일한 상급과정으로서 15개 국가의 결핵관리 핵심관리자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기초강의가 이루어졌고 마닐라에서의 공공 민간 협력사업 견학, 실습과정을 포함하는 2주간 연수를 통해 다제내성 결핵의 확산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공동노력의 필요성과 방법, 자국에의 적용방안 등이 전수되었다.

동 결핵균검사와 고급과정 두 연수는 2007년에도 본회와 세계보건기구 공동으로 대상자와 장소를 달리하여 연속 개최 예정으로 아태지역 국가결핵관리 부문의 명실상부한 국제과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국제협력단의 개도국지원을 위한 결핵관리 국제연수사업

대한결핵협회는 1995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결핵관리 국제연수”에 참여하여 2006년까지 11차 과정 수행을 통해 총 32개 개도국으로부터 245명의 결핵관리 의사 및 간호사가 우리나라의 결핵관리사업을 연수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쟁으로 인한 결핵관리 인프라의 복구, 재건을 지원하는 이라크 및 아르빌 지방정부를 위한 특별 연수 2개 과정이 추가되었다.

국제협력단의 연수생 초청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인력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참가국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중추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기초교육과 보건의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필요성과 수행성과면에서 본회가 추진하는 “결핵관리 국제연수”의 취지에 매우 잘 부합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그 위상에 걸맞는 대외원조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결핵관리 분야의 국제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개도국으로 하여금 당면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무상원조의 수혜를 넘어 국민의 질병퇴치와 건강증진을 위한 자립적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보다 폭넓은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세계 결핵퇴치를 위한 우리의 목적사업과 직결되므로 매우 효과적인 윈-윈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대한결핵협회는 2007년에도 국제협력단 연수생 초청사업으로 4개 결핵관리 국제과정은 개설하고 16개 개도국 70여 명의 결핵관리 의사와 간호사를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험한 결핵실태와 효과적인 결핵관리 방법을 전수하고 자국에의 적용을 통해 결핵의 조기감소를 위한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

2006년 3월 16일자 세계보건기구, 대한결핵협회간 양해각서 서문 중에서

세계보건기구 협력기구인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은 국제적인 결핵관리 훈련과정의 수행과 태평양지역의 결핵균검사 정도관리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동 지역의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하여 왔다.

이에 관련해서, 대한결핵협회와 서태평양지역 세계보건기구 (WPRO)간에 여러가지의 협력적인 활동이 2006년에 제안되었다. 이 활동은 지역전략계획과 관련이 있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즉, 서태평양과 북한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SEAR)의 결핵관리활동을 강화하도록 기대된다.